

일산 차이나문화타운 10 월 첫삽 (연합뉴스 2005.03.28)

일산 차이나문화타운 10 월 첫삽

[연합뉴스 2005-03-28 14:26]

2007 년 2 월 개장, 한.중 문화교류 거점화

(고양=연합뉴스) 김정섭 기자 = 다음달 29 일 1 단계 개장될

킨텍스(KINTEX.한국국제전시장)의 지원시설인 일산차이나문화타운이 오는 10 월 9 일 첫 삽을 뜬다.

서울차이나타운(주)은 일산차이나문화타운 건립 계획을 확정짓고 우선

1 단계 사업으로 1 천억원을 투입, 상업시설인 차이니즈 스트리트를 내년말 완공한 뒤 2007 년 2 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28 일 밝혔다.

차이니즈 스트리트는 4 천 176 평에 지하 2 층, 지상 3 층(연면적 1 만 5 천평) 규모로 정통 중국요리 식당가, 중국 명품 및 공예품, 판매시설 등 160 개 점포가 들어선다.

또 침, 발맞사지 등 중국 전통 의술을 직접 체험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동방 건강증진센터와 한방 클리닉도 개설될 예정이다.

서울차이나타운측은 이를 위해 지난 25 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국내 분양(임대)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29 일 베이징, 31 일 상해 해외 투자설명회를 연다.

서울차이나타운은 이와 함께 차이니즈 가든(6 천 500 여평)은 2009 년말까지, 차이니즈 팔레스와 게이트는 2012 년말까지 각각 완공하는 계획도 확정했다.

가든에는 청화대학 부설 청화신과기원, 한중 문화교류센터, 삼국지문화관,

보훈사탑, 중국 전통정원이, 팔레스와 게이트에는 특급 및 레지덴셜 호텔,
오피스 및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설 전망이다.

서울차이나타운은 지난해 11 월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(8 필지
8 만 4 천 700 여평) 가운데 처음으로 고양시와 스트리트와 가든 부지에 대한
토지 매매 및 임대(30 년 무상) 계약을 체결했다.

일산 차이나문화타운은 추정 사업비 7 천 600 여억원 가운데 외국인 직접
투자 5 천만 달러를 포함한 외자 1 억 달러 이상을 유치할 예정이어서
한.중 문화교류의 거점은 물론 양국 자본과 기업의 쌍방향 교류 교두보
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kimsup@yna.co.kr (끝)

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